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말씀

여러분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울었던 적이 있나요? 친구와의 관계, 성적,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답답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느껴 때, 우리는 더 깊이 슬퍼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던 예수님을 잃었다는 슬픔 때문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계셨지만,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슬픔과 절망이 너무 커서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직접 부르시는 분입니다. 가장 슬픈 순간에도,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넘어서,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비교 속에서 상처받았을 때, 스스로를 작게 느낄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름을 부르십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